

총장로서 실패한 판석형 블록 동명동 도로에 다시 추진 논란

광주시 대표문화마을 공모 선정에
아스콘 대신 화강암으로 설계 변경
시 “두께 강화하고 디자인 살려
공사 마무리되면 명물거리 될 것”
“판석 걷어낸 총장으로 경험 잊었나”
도로포장 또 혈세 낭비 우려

광주 원도심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동명동 카페
거리 일원의 도로가 화강석 블록으로 새 단장 된
다.

40억원을 들여 차와 사람이 다니고 걷기 쉽도록
도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전면일
률적으로 도심 도로 곳곳에 깔린 아스콘을 걷어내
고 화강석 블록으로 한눈에 봐도 명품 거리답게 주
변을 가꾼다는 게 행정당국 설명이다. 다만 일부에
서는 광주 총장로 바닥을 화강석 재질로 했다가 쉽
게 깨지고 불편을 겪던 사실을 거론하며 막대한 사
업비를 들여 파손 가능성이 있는 재질로 바뀌어 하
는지에 대해 불응표를 던지기도 한다.

5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동명동 안전
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지
는 동명동 카페거리 1440m 구간이다. 구체적으로
동계천로(680m), 장동로 (푸른길-장동로터미
640m), 제봉로 160m(중앙도서관-새벽달 640m)
구간이다.

광주 명소로 자리매김한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
보행 환경을 개선해 관광객을 모아 지역 경제를 활
성화하는 취지에 따라 사업은 시작됐다. 또한 동
명동 카페거리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혼잡하고
위험하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이 예
정대로 끝나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 차도는 화강암
재질의 판석(板石)형 블록으로 새 단장 된다. 기존
아스콘 도로를 가로·세로 각각 30·60cm 직사각형
크기의 화강암 판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도는 곳



5일 오후 공사 관계자들이 광주시 동구 동명동 차도에 화강암 블록을 깔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은 도로처럼 화강암 판
석으로 깎는다.

동구 관계자는 “이르면 7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동구의 명물, 동명동 거리가 산뜻해지고 차도, 사람
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사를 계기로 동명동 거리에 활기가 돌
면,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총장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집체한 옛 도심 상권 활
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면일률적인 아스콘 바닥 대신 화강암 판석으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에도 우려는 따라
붙는다.

수년 전 광주 총장로 도로를 화강암 판석으로 포
장했다가 도로 곳곳의 판석이 깨지고 제때 보수
가 되지 않으면서 상인과 시민 불편이 있었다는 전례
를 거론하며 “애초 계획과 달리 화강석으로 포장 공
법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나”는 지적이다.

판석형 보도블록을 깔았다가 상인 등으로부터 민
원

원이 빗발치자 2020년 판석을 모두 걷어냈던 총장
로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고 도로포장에 혈
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동구 자체 사업
으로 추진했다가 광주시 대표마을 공모사업에 선정
되면서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하면서 공법 변경이
있었다. 차도 포장에 아스콘으로 하려다 화강석으
로 바꾸게 된 것”이라며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가
로환경정비를 위해 디자인을 고려했고, 화강암 블
록도 총장로에 사용했던 것보다 15cm 두께는 20cm
짜리를 사용하게 돼 파손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어 “대표마을 추진위원회 위
원 일부가 ‘총장로 화강암 포장 파손 사례’를 거론하며
아스콘 방식 유지를 주장했으나,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많아 설계가 변경됐다”고 부연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연극협회, 미투 가해자 지목 회원 3명 제명

회원 200여명 대상 전수조사

광주 연극계에서 벌어진 ‘미투(#me too)’ 사태
(광주일보 6월 30일 7면)와 관련, 광주연극협회가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 3명을 ‘제명’ 조치했다.

5일 광주연극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은 극단 대표 A
씨 등 회원 3명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광주연극협회 징계 수위는 제명, 기한부 권리징

지(자격 정지), 견책 3가지로 이들에게는 가장 무
거운 처분이 내려졌다.

이사회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들의 소명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
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태와 지역
연극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반영해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광주연극협회는 징계 처분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연극협회는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부터 15일까지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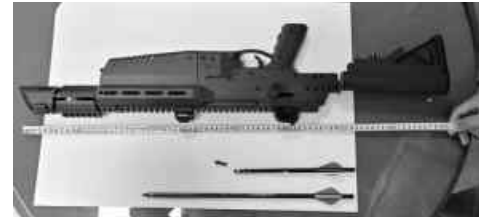
광주연극협회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해 협회 내에 인권위원을 구성했다”며 “성
폭력 뿐만 아니라 직장내 갑질 등 인권 유린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재발방지 대책 또한 내용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2018년 사이 극단 소속
배우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

사건 인사이트

‘화살총’ 든 20대 습격에 뺨 뚫린 여수 봉산파출소 경찰 7명 있었는데 진압은커녕 112 신고

직원들 숨는 동안 범인은 사라져
12시간 뒤 검거... 팀장 대기발령



20대 남성의 ‘화살총 습격’(사진)에 여수지
역 파출소가 뺨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과한은 공기총(탄환은 금속 화살촉)을 들고
새벽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파출소를 지
키던 7명의 경찰관이 제압은커녕 10여 분간 책
상 밑으로 숨거나 ‘셀프 범죄 신고’를 하는 등
어설픈 대응으로 일관했다.

여수에 사는 A(22)씨가 여수경찰서 봉산파
출소를 습격한 것은 지난달 30일 새벽 2시 10
분께. 당시 파출소에는 순찰팀장 B씨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돌연 총성이 울렸다. A씨
가 파출소 현관문 틈에 총구를 밀어 넣고 ‘화살
총’ 한 발을 쏜 것이다. 순식간에 파출소 내부
는 아수라장이 됐다. ‘뺨’ 하는 총성과 동시에
경찰관들은 책상 아래로 숨었고 복면 차림을
한 A씨는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발사된 화살은 파출소 내 아크릴 가림막에
꽂혀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문제는 다음이었
다. 총성이 그치고 과한이 달아난 뒤에도 경찰
관들은 뒤쫓기는커녕 여수경찰서 상황실로
‘셀프 신고’를 하는 데 급급했다. 일부 경찰관
들은 안경을 되찾았지만, 테이저건을 꺼내 들
고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달아나는 A씨를 지
켜보며 발만 동동 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A씨는 파출소에서 5km 떨어진 봉산
동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옷
을 세차레 갈아입고 가발을 써서 여장을 하
기도 했다. 경찰은 형사 등 50여명을 동원해 범
행 12시간 만인 6월 30일 오후 2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국
을 떠나 외국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돈

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강도질을 할 계획이었
다. 그 전에 연습 삼아 파출소에서 총을 쏘
봤다”고 진술했다. 또한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부모에게도 제대로 된 대접
을 못 받아 대인기파증에 시달렸다. 한국을 벗
어나고 싶었다”는 진술도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가진 적이 없으며, 지
난 2018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
을 복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지난 2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40여만원을 주고 샀으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은 몸체 38cm의 공기총으로, 이산
화탄소 카트리지를 끼워 공기압을 이용해 화살
을 발사하는 방식이다. 발사된 화살은 길이 23
cm로 화살촉이 날카롭게 깎여 있어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힐 수 있는 크기였다. 총에는 원래
40cm 길이의 화살이 사용되는데 A씨는 범행
에 앞서 화살을 가방에 숨기기 위해 반으로 잘
라내고 화살촉을 새로 끼운 것으로 조사됐다.

총 또한 원래 80cm 길이였으나 소용기와 개머
리판을 잘라내 크기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총동 대응 부실 책임
을 물어 순찰팀장 B씨를 대기 발령하는 한편 진
상조사서를 거쳐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유나양 부모 2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 받았다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10·5학년)양의 부모가 2년 전부터 우울증 진단
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남부경찰은 조양 일가족의 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친 조모(36)씨와 모
친 이모(35)씨 모두 지난 2020년에 우울증 진료
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조양은 별다른 질병이나 진료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양 모친이 지난 4·5월에도 광주의 한
병원에서 공황장애·불면증 진단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2년 동안 우울증이 지속됐을 가능성을 높
게 보고 있다.

우울증 진료 사실이 조양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
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순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제적 곤란에 정신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일가
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다는 것이다.

조양 일가족은 5월 한 달 동안 발신 전화가 5통
안팎에 그치는 등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으며, 지
난해에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인
투자’를 했다가 2000여만원 손해를 본 것으로 밝
혀졌다. 대출금과 카드빚 등 1억 5000만원의 채
무가 있었으며 아파트 관리비는 넉 달 치가 밀린
상황이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 휴대
전화 포렌식, 수면제 처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
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검을 통해 조양
가족 3명의 사인을 밝히고 차량 고장·사고 여부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당진(신축)원룸매매

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

▶ 임대관리 직접해드리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전남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시외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